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준 110-240 서울시 종로구 인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로안하호텔 PSPD, 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백미순 : 723-5302)
제 목 논평 :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날 짜 1999. 1. 27. (총 1 쪽)

논 평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1. 심재륜 대구 고등검찰청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총장 및 수뇌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재륜 고검장은 검찰과 법조계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있는 현실의 근본 원인은 결국 법조계 내부에 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검찰이 전별금이 나 떡값을 받아오던 관행의 청산은 물론 정치적 시너로서 존재해왔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총체적인 사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심재륜 고검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그의 검찰총장 및 수뇌부의 총사퇴 요구를 지지한다.
2. 사실 이번 대전사건의 처리과정을 차치하더라도 지난 1년간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진작부터 검찰 수뇌부의 무능과 정치적 처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개혁의 선봉장이어야 할 검찰총장이 그러한 문제점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검찰에 대한 신뢰는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3. 이번 사건이 검찰 내부의 갈등 때문에 불거진 것인지, 대전법조비리 관련 사퇴제 출요구에 대한 반발로 터져나온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중요한 점은 검찰의 고급간부 중의 한 명에 의해서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 있다.

4.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그 동안 정치적 외풍과 내부비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던 검찰이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자면 우선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도부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사퇴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검찰개혁과 사회개혁을 추동할 인물로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를 새롭게 세우므로써 '국민의 정부'에 걸맞는 깨끗하고 독립적인 검찰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